

# 고물가가 뉴노멀이 된 시대

2026-01-15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part1\_03

고물가는 뉴노멀이다. 양적완화로 풀린 돈은 12~18개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귀환하는데, 트럼프 2.0의 단기채 발행·동맹국 자금·유사 양적완화 3종 결합은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한 1972년 닉슨/번즈 평행이론을 닮았다. 미국은 패권통화의 지위 때문에 튀르키예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며, 자산 가격의 향방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결정한다.

## 01 핵심 골격

- 1 12~18개월 시차의 인플레이션 역습 — 양적완화로 풀린 돈은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12~18개월 후에 한꺼번에 폭발한다. 2025-12 트럼프 정부의 유사 QE(파월의 단기채 매입) 시작점은 2027년 인플레이션 역습의 출발점. 1972년 닉슨/번즈 사례(금리 9%→3% / S&P +14.3·+19% → 1973·74 CPI 8.7·12.3% / S&P -15·-26%)가 평행이론.
- 2 트럼프 2.0 마지막 수단 3종 결합 → 유동성 홍수 — 단기채 55% / 장기채 45%(재무부 준칙 80/20 개기) + 동맹국 강제 투자(MOU 위주, 법적 구속력 약함) + 2025-12 유사 QE.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고갈로 비트코인이 단기 유동성의 바로미터로 부상.
- 3 캔틸런 효과의 21세기 작동 — 새 돈은 자산가(VIP 대출·저금리)가 먼저 받고, 서민이 가장 나중에 받는다. 미국 부의 역전 시점은 2015년(상위 1% > 하위 90%) — 1927년 이후 처음 발생한 신호이며, 1929년 대공황의 선행 지표였다는 역사적 경고.
- 4 미국이 튀르키예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 — 패권통화의 지위 때문. 튀르키예는 통화 폭락이 수출 경쟁력·관광 수입으로 일부 완충되지만, 미국은 달러 가치 하락 시 각국 외환보유고 탈달러 가속 → 패권 근간 흔들림. 인플레이션 경계 3.5% / 위험 4%, 4% 돌파 시 즉각 긴축 강제.

## 02 최신 지표 보강 (2025 Q3 ~ 2026-05 기준 (WebSearch 자료 보강 — 회차 맞춤 5종, 강의 메시지에 새 시각 추가))

미국 부의 분포 격차 (2025 Q3 — 강의 § 8 후속)

**상위 1% 자산 31.7% / \$55조 ≈ 하위 90% 합**

강의 § 8 '2015년 부의 역전' 이후 10년 — 상위 1% 자산이 하위 90% 전체와 사실상 동등. 자산 구성이 같아짐: 상위 1%는 주식·뮤추얼펀드의 절반 이상, 하위 90%는 부동산 중심.

출처 · federalreserve.gov

연준 RMP 진행률 (2025-12~2026-04)

**BS +\$200B (4개월) / 2026 연간 +\$540B 추정**

강의 § 11-3 '2025-12 파월의 유사 양적완화 시작점' 정량 확인. 12~18개월 시차의 카운트다운 시작.

출처 · wolfstreet.com

외환보유고 탈달러 (2025 Q4)

**달러 57% (1994 이래 최저) / 금 비중 23%+ (2015년 <10% 대비 2배)**

강의 § 15 '미국 패권통화 취약성' 정량 근거. 1999년 71%에서 14%p 하락. 중앙은행 금 매입 1,000톤+/년 (3년 연속).

출처 · data.imf.org

트럼프 vs 파월 (2026-04 후속)

**FOMC 금리 3.5~3.75% 동결 (3연속) / PCE 3월 3.5% 도달 / 트럼프 5-15 해고 위협**

강사 경계 수위(3.5%)에 PCE 정확 도달. 파월은 마지막 결정으로 동결. 강의 시점에 없던 변수 —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 추가.

출처 · fortune.com

튀르키예 노선 전환 (2026-03)

**CBRT 정책금리 37% 동결 (5연속 인하 후 첫 동결)**

강의 § 13~14 에르도안 평행이론에 nuance — 2023년 새 경제팀 임명 후 정통 정책 회귀, 2026-03 첫 동결. 평행이론은 동기의 닮음, 결과의 자동 반복은 아님.

출처 · turkiyetoday.com

## 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 01 시차를 역이용** — 2025-12부터 시작된 유사 QE의 12~18개월 시차를 인지. 2026년 자산 상승 기회를 잡되, 2027년 후반 인플레이션 역습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미리 준비. 시장 과열·포모(FOMO)에서 진입하지 말 것.

---

**02** 비트코인 = 단기 유동성 바로미터 모니터링 — 비트코인 상승은 주식 시장 자금 유입 가능성, 정체는 폭발 상승 어려움 신호. 매월 확인 (투자 여부 무관).

---

**03** 인플레이션 4% 트리거 라인 모니터링 — 강사 경계 수위 3.5%에 PCE 이미 도달(2026-03). 4% 돌파 = 강의를 짚은 긴축 강제 신호 (트럼프 임명 의장도 강제). 강의는 신중히 흐름에 올라타라고 권고.

---

#### 웹 보강 출처 (Perplexity)

- <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/releases/z1/dataviz/dfa/distribute/chart/>
  - <https://www.cbsnews.com/news/us-wealth-gap-widest-in-three-decades-federal-reserve/>
  - <https://wolfstreet.com/2025/12/11/why-the-feds-reserve-management-purchases-are-not-qe/>
  - <https://data.imf.org/en/news/october%201%202025%20cofer>
  - <https://www.gold.org/goldhub/research/central-bank-gold-reserves-survey-2025/perspectives-on-gold-reserves>
  - <https://fortune.com/2026/04/29/jerome-powell-fed-decision-rates-steady-last-press-conference-defiance-trump-kevin-warsh/>
  - <https://www.turkiyetoday.com/business/turkish-central-bank-unveils-2026-monetary-policy-calendar-reaffirms-5-inflation-target-3212082>
- 

양적완화 (QE) / 유사 QE (2025-12 단기채 매입)

M2 통화량 (글로벌 95조 / 한국 M2 21%)

캔틀런 효과 (깡띠용 효과)

12~18개월 인플레이션 시차

단기채 vs 장기채 (재무부 준칙 깨기 55%/45%)

비트코인 = 단기 유동성 바로미터

1972 닉슨/아서 번즈 평행이론

에르도안의 기적의 논리 (금리 인하 → 물가 안정)

Fanding @kpunch · part1\_03